



봄꽃으로 물드는 역사길 산책

청남대

글 윤혜원 사진 청남대

다채로운 봄 풍경을 자랑하는 청남대는 과거 대통령들이 휴가를 즐기던 대통령 전용별장이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로, 1983년 건립돼 대통령 전용 휴양지로 사용하다가

2003년 국민의 공간이 되었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

청남대는 대청호와 어우러진 푸른 나무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뽕뽕한 가로수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중간중간 차를 세워두고 대청호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데크길도 설치되어 있다. 성수기에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다.

청남대는 184만㎡(55만 평)의 부지와 52동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둘러보는 쉽지 않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지도에 안내된 산책로 코스를 취향에 따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바람길', '오각정길', '민주화의길' 등 5개 이상의 산책로가 있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이 걸리는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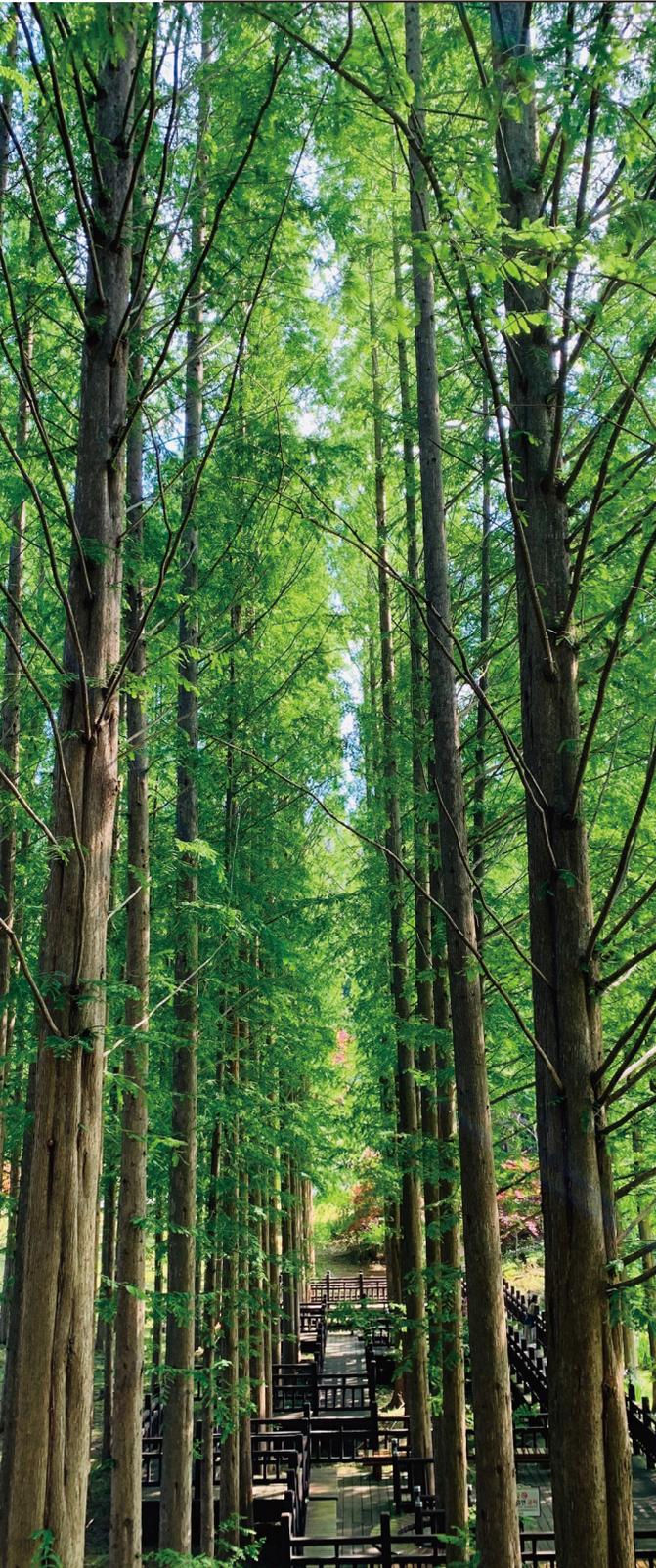
매년 4월 말에는 봄꽃축제인 '영춘제'를 진행한다. 청남대는 건립 시 '영춘재(迎春齋)'로 불리었다. 봄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축제 기간에도 꽃내음을 맡으러 온 이들로 북적인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해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꽃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등 각종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청남대 본관

주차장에서 나와 걷다 보면 청남대 본관 정문이 나온다. 본관 1층에는 외부인과의 소통을 위한 접견실, 거실, 손님 침실 등이 있다. 눈여겨볼 것은 접견실의 달력과 시계로, 2003년 4월 18일 10시에 멈춰있다. 이는 베일에 싸인 청남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개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후 청남대의 소유권은 청와대에서 충청북도로 이관됐다.

2층은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침실 및 거실, 집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휴양 중에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마련한 것. 역대 대통령들은 청남대에 머물며 정국을 구상하며 큰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한 뒤로 '청남대 구상'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
관람 정보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관람 시간 9:00~18:00

매표 및 입장 시간 일반 6,000원 *상세 요금은 홈페이지 참고

휴관일 매주 월요일(4~6월, 10~11월은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대청호를 바라보며 즐기는 산책

본관 뒤편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랑을 받은 산책로 '오각정갈'이 있다. 국내 유일의 오각형 정자가 있는 이 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봉황대 전망대다. 나선형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청남대와 대청호의 푸른 절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잠시 여유를 즐긴 뒤 산책로의 끝자락인 메타세콰이어길로 향한다. 높게 뻗은 나무 100여 그루와 상쾌한 피톤치드 향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이곳은 관광객 사이에서 유명한 사진 명소로, 곳곳에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지막 코스로는 양어장 앞 대통령기념관이 있다. 본관의 60% 크기로 만들어진 '미니 청와대'로 대통령 테마 및 현대사 교육의 장으로도 통한다. 내부에는 국무회의장, 대국민연설,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삶을 체험하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봄기운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